

목소리

작 정소정

<작품소개>

이 작품은 한국의 여행자가 다낭의 리조트에서 베트남 여귀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.

***제작 중인 작품이므로 낭독공연 대본의 일부만 공개합니다.

<1막 5장>

리조트 앞 바다에 해가 진다.

붉고 푸른 색의 바다의 색이 지워지고 어둠만 남게 된다.

남 : 바스락거리고 살 부비고 웃고 숨 쉬고. 살아있는 것들이 내뿜는 냄새. 결과 색이 다른 무수 많은 피부와 그 피부 위 틈과 틈에서 스며나오는 삶의 기록. 무엇을 먹었는지, 어떤 사람과 체액을 교환했는지, 무엇에 이끌려 어디에 머물렀는지...

여 : 밤이 오면 나아지겠지.

여자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, 남자가 말한다.

남 : 밤이 오면 나아질까?

여자, 놀라서 남자를 본다.

남 : 밤이 오면 나아지겠지.

여 : 내 목소리 들려요?

남자, 반응이 없다.

여 : 그렇겠지.

남자, 모래사장에 앉는다.

여자, 남자와 조금 떨어진 뒤편에 앉아 그를 본다.

남자가 하는 행동, 사소한 몸짓을 따라한다.

여 : 세상이 제 목소리에 귀를 막은 그 날부터 전 잠들지 못 했어요. 그건 또 하나의 형벌이었죠.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서웠어요.

여자, 손목을 긋는다.

그러나 피만 철철 날 뿐 아무렇지도 않다.

여자, 목을 맨다.

허가 길에 흘러나오지만 또 아무렇지도 않다.

여자,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.

머리가 빠개졌지만 뭐 여전히 살아있다.

여자, 물에 뛰어든다.

물에 불어 몸이 두 배로 커지고 젖었을 뿐이다.

별이 뜬다.

하나.

둘.

남자, 하늘을 본다.

여자, 따라서 본다.

여 : 별.

남 : 별... 이네.

여자, 남자를 본다.

여 : 아닐 거야.

남 : 별.

남자, 좀 더 가까이 보려는 듯 일어선다.

여자, 따라서 일어선다.

남 : 그런 하늘은 처음 봤어요. 적도의 밤하늘은 고래의 뼈처럼 둥글었어요. 돛형태의 지붕처럼 둥글려진 하늘에 별이 층층이 박혀있었어요. 어떤 별은 바다에 빠질 듯 수면에 닿아있고 또 다른 별은 그 별과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

처럼 저 하늘 위로, 고개를 젓혀야 볼 수 있을 만큼 멀리 있었죠. 노를 저어 수평선 가까이로 가면 눈 앞에 별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.

여자, 기침을 한다.

남자, 여자가 있는 쪽을 본다.

여자, 다시 기침을 한다.

남자, 여자가 있는 쪽을 얼핏 보는 듯 하다가 다시 앞을 본다.

여자, 남자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 다가간다.

다시 기침을 해본다.

남자는 움직이지 않는다.

남자의 눈은 여전히 별을 보고 있다.

여 : (망설이며) 저기...

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인다.

여 : 혹시 내 목소리 들려요?

남자, 돌아보면.

거기 여자가 있다.

처음으로 시선이 마주치는 두 사람.

여 : (놀라) 저... 보여요?

남자, 이상한 듯 다시 고개 돌린다.

남 : 무슨 소리지?

여 : 저... 여기 있어요.

남자, 다시 여자를 본다.

보이지 않지만 소리 나는 쪽을 응시한다.

회피하지 않고.

남 : 누구...?

여 : 들려요?

남 : 네.

여 : 정말 들려요?

남 : 네.

여 : 매일 기도 했어요.

남 : 네?

여 : 누가 내 목소리 좀 들어줬으면... 한 번만... 단 한 번만이라도...!

암전.

여 : 당신이 처음이에요. 내 목소리를 들은 건.

<2막 2장>

리조트 바닷가 바.

한결, 기타를 치고.

보람 : 중권이 방에서 앓는 동안 저와 남편이 속한 패키지팀은 시내관광을 했습니다. 가이드가 이끄는 곳으로 가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지만, 또 안 사면 서운한 특산품들도 사고, 쌀국수도 먹었습니다.

한결 : 자아! 어떠셨어요? 오늘 하루, 즐거우셨어요? 아, 네. 힘드셨죠? 이제 여기서 밤바다 보면서 식사도 하시고 또 칵테일도 드시고.

바텐더 : 안녕하세요, 최원혁입니다. 칵테일은 따로 계산하실 필요 없이 무한제공입니다.

일동, 환호하고.

보람 : 여보, 나 물 좀 줘.

대식, 물통 준다.

보람 : 아우, 짜.

대식 : (마셔보고) 안 짠데?

보람 : 어? 그래? (다시 마셔보고) 짠데... 바닷물 같애.

형미 : 어디 봐요. (마시고) 안 짠데?

보람 : 이거 무슨 물이야?

대식 : 가이드님이 준 건데?

한결 : 아, 이거 아까 님호아에서 뒷산에 산책 갔다가 거기서 만난 군인이 줬어요.

원혁 : 그 사람 다리 한 쪽 없었죠?

한결 : (놀라며) 어떻게 알았어요?

원혁 : 귀신이에요.

한결 : 네?

대식 : 외다리귀신.

한결 : (비명지르며) 아악! 말도 안 돼.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하세요?

원혁 : 그 귀신 되게 유명해요.

대식 : Ninhua에서 여행자들에게 물을 주는데 그 물이 어떤 사람은 짜고 어떤 사람은 안 짜대요. 베트남에선 그래서 그 짠맛을 유령소금이라고 부른다죠. 귀신이 준 물을 마셨는데 짜면 영혼이 가벼운 거라면서요?

형미 :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?

대식 : (손에 들고 있는 책을 보여주며) 책에서 봤습니다.

형미 : 와아... 그런 게 책에도 나오는구나.

연화 : 근데 영혼이 가볍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

대식 : 영혼이 가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? 깃털처럼 막 훨훨 날아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도 보고, 귀신도 보고. 어? 그리고 보니 당신... ?

보람 : (놀라며) 저요? 저 귀신 안 보여요!

대식 : 그냥 책에 나오는 얘기야. 당신처럼 둔한 사람이 귀신은 무슨.

보람 : 네. 맞아요. 귀신 같은 게 어딴겠어요, 요즘 세상에.

원혁 : 아니에요! 있어요! 귀신.

형미 : 여름 밤에 귀신이야기라... 좋지.

원혁 : 이건 제가 진짜로 본 건데요. 여기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... 거기 위에 우리 가이드님처럼 정말로 바싹 마른 남자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.

대식 : 한결씨처럼?

한결, 마른 귀신 흉내를 낸다.

(사운드)

한결 : 이렇게?

원혁 : 근데 지금 너무 편안해요. 그 귀신은 배가 고프지 항상 힘들어 보였거든요.

한결, 자세를 바꾸어본다.

원혁 : 어! 어! 비슷해요.

한결, 이제는 완전히 굶주린 귀신이 된 것만 같다.

대식 : 지금 보셨다고 말하는 걸신은 베트콩 귀신입니다. 이곳 다낭 사람들은 귀신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복권에 당첨되고 싶어서 이 공산주의자 유령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. 그럴 때면 그는 번번히 그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거부했다고 해요.

원혁 : 또 어떤 귀신은 여자들만 지나가면 건드려요.

귀신의 팔이 나와 연화를 건드리고.

연화 : 엄마야!

원혁 : 근데 그 팔에 털이 가득했대요. 진짜 무슨 짐승처럼.

대식, 책 펼쳐 읽으며

대식 : 여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미군유령 둘은 빈랑나무 아래에서 출현하곤 했다. 그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속삭이고

미군유령1,2 빈랑나무 아래에서 정말로 나타난다.

자신들끼리 속삭이며 떠든다.

대식 : 어떤 주민에게는 빈 강통 속에서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는가 하면

소리를 만드는 움직임 시작한다.

대식 : 다른 주민에게는 빈 탄약통에서 탄피들이 달그락거리는 것 같은 불쾌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. 이 거대한 남자들은 항상 함께 있다. 그들은 부끄럼이 많고 수줍어하며 약간 신경질적이다. 그들은 신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지만 서로 간에는 수다를 많이 떠난다.

본격적인 움직임과 함께 더 많은 유령들이 나타난다.